

강기정 광주시장,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상호협력 논의

시청서 한국상하수도협회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 주재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 방안 모색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주재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 및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발전 방향 및 2023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2022년도 회계 결산(안), 인사규정 개정,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무국 및 위원회 설치 규정 개정, 사무총장 임명 동의안, 협회 운영체계 제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또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수도시설 안전성 강화 등도 이야기했다.

아울러 오는 3월21일부터 23일까

지 3일간 열리는 '2023 국제물산업 박람회(WATER KOREA)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후위기 대응,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안전한 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위해 추경 예산 50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164억원을 투입, 정비에 나선다. 특·광역시에는 국고 지원이 없어 예산 어려움이 많지만 안전한 상하수도 구현을 협회장인 제가 있는 광주시부터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월 열리는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며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최하

는 2023 국제물산업박람회는 '물 미래'를 주제로 오는 3월21일부터 3월23일까지 경기도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물산업 분야 대표 기관들의 참여를 통해 물산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연간 상시 기업 플랫폼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채널도 제공한다.

이 기간 기업 200개 사가 참여해 상하수도관, 수처리설비 및 서비스, 소방설비 등 전시품목 등을 볼 수 있는 592개 부스를 연다.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미국수도협회·일본하수도협회 등이 참가하는 국제세미나, 포럼, 기업지원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된다. /윤규진 기자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상하수도협회 제1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현대자동차, '더 뉴 아반떼' 부분변경 모델 디자인 최초 공개



현대자동차는 27일 '더 뉴 아반떼(이하 아반떼)'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아반떼는 지난 2020년 4월 출시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기존 모델의 강렬한 존재감을 보다 강조하면서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아반떼가 한층 역동적으로 진화한 인상과 함께 돌아왔다.

현대차는 27일 '더 뉴 아반떼(이하 아반떼)'의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아반떼는 지난 2020년 4월 출시 이후 3년만에 선보이는 부분변경 모델로, 기존 모델의 강렬한 존재감을 강조하면서도 디자인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는 기존 모델에 녹아져 있는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Parametric Dynamics)' 테마를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수평적인 그래픽 요소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낮고 와이드한 비례감을 완성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는 보다 예리하면서도 입체적으로 디자인돼 전체적인 인상을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라디에이터 그릴은 센터 크롬가니시를 기준으로 상하로 갈끔하게 정돈함으로써 차랑을 한껏 넓어 보이게 해준다.

측면부는 삼각형 문양의 패턴이 강조된 델타커버와 새로운 디자인의 알로이 휠을 적용해 보다 고급스러워진 자태를 갖췄다.

후면부의 리어 범퍼는 투톤 그래픽과 함께 견고하면서도 날렵한 디자인이 적용돼 한껏 또렷해진 인상을 구축하고, 워터입의 실버가니시가 적용돼 스포티한 캐릭터와 안정감 있는 스탠스를 완성했다.

이와 함께 신규 바이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세이지 그린 컬러가 새롭게 적용된 인테리어는 신선한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친환경을

중시하는 고객층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한층 강인한 인상으로 거듭난 아반떼의 디자인에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입혀 대표 준중형 세단 모델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뉴 아반떼는 고객의 눈높이를 적극 고려해 기존 모델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강렬한 인상을 더욱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다양한 고객 연령층에게 두루 사랑받는 준중형 세단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주자 입지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삼일절
3월1일 휴간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자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구봉암의 겨울